

상쾌해진 뒤에 길을 떠나라

고 진 하

그대가 불행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을 때
그대의 삶이
타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때
아직 길을 떠나지 말라
그대의 존재가
이루지 못한 욕망의 진흙탕일 때
불면으로 잠 못 이루는
그대의 밤이 사랑의 그림일 때
아직 길을 떠나지 말라

쓰디쓴 기억에서 벗어나
깨달 없는 기쁨이 속에서 샘솟을 때
불평과 원망이 마른풀처럼 잠들었을 때
신발 끈을 매고
길 떠날 준비를 하라

생에 대한 온갖 바람이 바람인 듯 사라지고
욕망을 여윈 순결한 사랑이
아침 노을처럼 곱게 피어오를 때

단 한 벌의 신발과 지팡이만 지니고도
새처럼 몸이 가벼울 때
맑은 하늘이 내리사는
상쾌한 기운이 그대의 온몸을 감쌀 때
그대, 그대의 길을 떠나라